

시연施連의 현조실록탐험賢祖實錄探險

기린 같은 아름다움을 지닌 정경부인貞敬夫人

좌윤공파 후손들은 자리를 먹지 않는다

권오신
칼럼니스트, 좌윤공파회장

는 태화강太和江은 강심이 깊고 맑아 사슬이 풍부해서 지금도 자라가 서식한다.

훈인 첫날밤이다. 신방(新房, 신랑 신부가 첫날밤을 보내는 방)으로 들어보내는 민속놀이도 끝나고 잠을 청하는데 바깥에서 쇠술을 치는 소리가 계속 들려 문정공文靖公이 신부에게 소리가 나는 연유를 물었다고 한다.

잠시 바깥을 다녀온 언양김씨彦陽金氏의 답이 낼 새 신랑 밥상에 올릴 보양식 자라(별髦)탕에 쓸 자리를 쇠술에 가두어 두었음을 알게 됐다. 쇠술에 간한 별髦들이 솔두껑을 치는 소리란 것을 알고 그 즉시 “오늘 우리 둘은 백년해로百年偕老를 언약했는데 미물이라도 그 생명을 뺏어 몸을 보충하리오.”하고 언양김씨彦陽金氏의 생각을 물었다고 하신다.

정경부인(貞敬夫人, 언양김씨彦陽金氏)도 같은 생각이어서 새벽에 처갓집 가족들이 잠든 사이 가마솥에 간한 열마리나 되는 자라(별髦)를 새 신부의 흥의(紅衣, 신부가 혼례 날 입는 대례복 붉은 치마)에 담아 동구 밖 강가에 나가 놓아 주었다. 잔잔한 강물로 헤엄치는 열 마리의 자라 등이 하현下弦의 달빛을 받아 무척이나 반짝였다고 한다.

아침이 되어 이 소식을 알게 된 판도총랑공版圖總郎公은 사위의 어른스런 행동과 생명을 아끼는 마음을 보고 두 번을 놀라고 적선여경(積善餘慶, 선을 쌓게 되면 경사스런 일이 자손에게 까지 미친)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이 기록으로 짐작해 보면 문정공의 처갓집은 강과 멀지 않은 곳, 살림 세가 좋았고 사위 사랑 마음이 자연스럽게 묻어난다. 또 문정공의 성품이다. 개경에 첫발을 들어놓는 영남 학인들의 사랑채를 부친 문하시중공父親門下侍中公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진 사실도 이같은 마음, 넉넉한 인심이 뒷받침됐을 것 같다.

안동부(安東府) 동문(東門) 밖 솔숲 마을(지금의 안동대학교 자리로 추정)에서 문정공과 정경부인의 산소(2021년 7월 26일 연원으로 이장)가 있었던 강남 고지곡에 가려면 낙동강을 건너야 한다. 버선발을 벗어야 할 겨울철이면 더 난처하다. 이때 문

정공집 후손이라면 짧은 강폭이며 사공이 업어서라도 건너 주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문정공의 사후까지 그 인심이 유지되었음을 문경공 장암파(文景公 壯巖派) 구전口傳으로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이처럼 문정공 조고 조모님의 부덕婦德, 인덕人德을 자연스럽게 물려받은 10남매들은 조선을 호령하는 인재로 성장했다.

안동권씨 좌윤공파佐尹公派 문경공계文景公世系 장암파壯巖派 후손들은 약으로도 자라탕(별髦)을 먹지 않는 등 절제하게 지킨다. 이 일화는 순종純宗 2년(이유己酉 1909) 의정부장사랑將仕郎이었던 정목공(正公 1881~1967)이 한국전쟁(1950)이 나든 해까지 열었던 서당을 통해 전해 내려왔다.

좌윤공파佐尹公派 후손들은 단종端宗 복위가 실패로 끝나는 날, 김천 원주 치악산, 경상도 연일, 영양, 예천 산골로 숨고 100년 금고형禁錮刑에 끝이는 고단한 삶을 살면서도 문정공文靖公과 정경부인貞敬夫인의 애물정신愛物精神을 놓지 않았다.

〈자료출처: 安東權氏佐尹公派譜, 증언: 좌윤공 23세손 태乙 전상주국립대학교 대학원장, 문학박사〉

〈해설〉 선대先代 조모祖母님들의 기록은 없었다. 조선은 유학儒學이 국가 학문으로 자리 잡은 이후부터 가부장적家長의 사회가 더 굳어지면서 여성에 대한 기록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즉 보조譜에도 정작 당사자인 여성의 이름이 오르지 못하는 대신 아버지의 휘諱자가 기록될 만큼 철저하게 제외됐다. 이번 책을 집필하면서 현조顯祖의 일상을 내조했던 선대 조모님들의 기록을 찾을 수 없어 늘 안타깝고 한스러웠다. 오랜 관습이 젠더 운동이 더 거칠어지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문정공文靖公과 정경부인貞敬夫인의 생명존중 정신 고려 최고 관직 문하시중門下侍中, 주밀원원서樞密院院事이었던 회경공(회호溢號 傑敬公) 휘諱 응일用一, 15세)은 판도총랑(版圖總郎 조선의 호조) 김가기金可器의 딸인 언양김씨彦陽金氏를 며느리로 맞이했다. 문정공文靖公이 혼례식을 치른 곳이 개경開京인지 처갓집 본관이었던 언양(彥陽, 지금의 울산) 인지는 기록이 없어 확인할 수 없지만 처갓집이 강강과 가까워 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언양에서 발원發源, 반구대 유적을 끼고 울산蔚山으로 흐르

허균 불후의 명성에 대해 생각하다, 법천사

권혁진 박사
주밀공파, 36세, 강원한문연구소

정을 지낸 이원(李原) 모친의 묘다. 유방선(柳方善, 1388~1443)과 유방선의 아들 유윤겸의 묘도 옆에 나란하다.

이원은 공신으로 대신의 지위를 차지하여 부귀와 권력이 일시에 자자했으나 만년에 벼림받아 죽고 말았다. 유방선은 학문과 덕행이 있었지만 배 옷으로도 몸을 제대로 가리지 못할 정도였다. 유배 생활을 하다가 1415년 사면령이 내려져 원주 법천리로 오게 되었으나, 사현부의 탄핵으로 사면이 취소되어 다시 영천으로 떠나야 했다. 끼니를 거르며 산중에서 곤궁하게 지내다가 낡은 일상을 마쳤다.

유방선이 절 밑에 살자, 권남, 한명희, 서거정, 이승소, 성간 등이 모두 돌아와 법천사에서 공부하였다. 이들이 문장으로 세상을 옮기고, 혹은 공을 세워 나라를 안정시켰다. 절의 명성이 이로 말미암아 드러났게 되었다. 서거정은 “지난해에 글 읽던 곳, 큰 산에 또 불리어 가네. 행장을 말 등에 높이 실었고, 서적은 소 허리에 가득 실었네. 건곤은 넓고 넓은데 도로는 멀고 멀네. 영웅으로 시대를 만나게 될자는, 필경 우리 중에 있을 것이네”라고 노래했다.

허균은 둘러보다가 인생에서의 궁달(窮達)과 성



쇠(盛衰), 불후의 명성에 대해 생각한다. 유방선은 임금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면서도, 임금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날을 기약하였다. 유방선의 아들 유윤겸은 대궐을 출입하며 왕명의 출납을 맡기기에 이르렀다. 유방선의 영달은 이원보다 못하였지만 수백 년이 지난 뒤에도 사람들이 그의 글을

현조(賢祖) 문집 봉람(奉覽) <13>

삼외재집(三畏齋集)



권기현 편집위원장

〈삼외재집〉은 조선 후기의 유학자 권명희(權命熙, 1865~1923) 공의 시문(詩文)을 모은 것으로 21권 10책이다.

공은 복야공파로 시조 태사공 33세(世)이다. 자는 공립(公立)이며, 호가 삼외재(三畏齋)이다. 부친은 권병직(權秉直, 1843~1870)이며, 모친은 하동정씨(河東鄭氏, 1839~1871)로 정동신(鄭東蘆)의 딸이다.

공은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 1836~1905)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902년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鎮, 1798~1879)의 문집이 간행될 때, 노사가 율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의 학설을 배척하며 쓴 〈외필(猥筆)〉을 공이 문제 삼아 이를 문집에서 삭제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그 글을 반박하는 논설을 전개하였다.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스승 송병선과 함께 고종(高宗)을 만나 상경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본 현병에 의해 고향으로 암송되었다. 스승이 순절한 후 진영(眞影)을 봉안하고 아침저녁으로 문안하는 등 사제의 도리를 극진히 하였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고향에 은거하면서 후진 양성에 힘쓰는 한편, 성리학 연구에 온 힘을 쏟았으며, 망국의 슬픔을 읊은 시를 많이 지었다.

1925년에 공의 족질(族姪) 만재(萬齋) 권재춘(權載春, 1882~1952)이 400자 목판 53매, 무려 21,447자나 되는 행장을 지었다.

문집에 서문과 발문이 없어 문집의 간행 내력이나 시기 등을 자세히 알 수 없다. 행장 내용 중에 “선생[송병선]께서 옛 성인을 이어서 후학에게 열어주신 큰 줄거리는 문집에 가득 있다”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행장을 지을 당시 이미 문집이 편집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집의 내용을 보면, 권1·2에 시(詩)가 401제(題) 441수, 권3~10에 서(書)가 229편, 권11~15에 잡저(雜著)가 44편, 권16에 서(序)가 9편, 기(記)가 39편, 권17에 발(跋)이 13편, 권18에 명(銘)이 2편, 상량문이 4편, 제문이 18편, 권19에 묘갈명과 묘표가 각 4편, 유사가 2편, 행장이 9편이며, 권20·21은 부록으로 공의 행장이 들어 있다.

시(詩)는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망국의 슬픔을

표현한 것이 많다. 서(書)는 공이 깊은 관심을 가진 이기론(理氣論)에 대해 스승에게 질의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펼친 것이 많이 있다.

잡저(雜著)의 〈을사일기(乙日日記)〉에는 1905년 을사조약 체결을 전후해서 스승 송병선이 순절(殉節)할 때까지의 일기 7,666자의 장문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또한 공이 집중적으로 연구한 성리학의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표현한 〈태극도설의의(太極圖說義)〉·〈명덕변(明德辨)〉·〈이기변(理氣辨)〉·〈사칠설(四七說)〉·〈심통성정설(心統性情說)〉·〈지각설(知覺說)〉 등이 실려 있다.

다음은 공의 스승 송병선의 ‘산속에 살며 생각을 말하다 [山居述懷]’라는 시의 운자(韻字)를 따라 지은 시이다.

長途盤在前(장도반재전) 머나먼 길 구불구불 앞에 있는데 日落西岑暮(일락서岑暮) 서쪽 산봉우리 해 떨어져 저무니 眼迷千樹中(안미천수중) 나무 많은 숲 속 눈잎이 아득하고 莫辨岐與路(만별기여로) 갈림길 바쁜길이 구분이 안 되네 柱杖無所進(주장무소진) 나아갈 곳이 없어 발걸음 멈추니 胸間纏百憂(흉간전백우) 가슴 속에는 온갖 근심 얹는데 何人將膩燭(하인장기烛) 어느 누가 밝은 촛불 들고 와서 此際吾與儔(차제오여주) 이러한 때 나와 짹이 되어주겠나

朝日俄更曠(조일아갱돈) 동트면 이윽고 또 아침 해 솟아 蒼然西山遙(창연서산요) 아득히 멀리 서쪽산이 질푸르며 八宇同照徹(팔우동조절) 팔도강산 모두 환히 비추어주고 歌吟起漁樵(가금기어초) 어부와 목동들 일어나 노래하리

可信千秋返(가신천추반) 세월이 오래되면 운이 돌아오니 魅魅不足驚(이마부족경) 도깨비들이 무에 그리 겁나겠나 青螢且見納(청형차건납) 푸른빛 반딧불 받아들일 터이니 盛德實難名(성덕실난명) 위대한 덕 정말 표현키 어렵네

이 시에서 첫 번째 네 구와 두 번째 네 구는 일제강점기의 임율한 상황에 작자의 스승이 밝은 촛불을 들고 찾아와 인도해 주리라는 바람을 나타내었으며, 세 번째 네 구와 마지막 네 구는 아침 해가 뜨면 온 세상이 환해지듯이 멀잖아 밝은 세상이 돌아올 것이니 그렇게 되면 훌륭하신 스승께서 예전처럼 우리를 가르쳐주리라는 희망을 나타냈다.

三畏齋文集卷之一	
南山挺翠	外此心差錯易因名
竹東嶺秀孤松	敬次渊齋先生山居述懷韻
松竹雖分在歲寒	千秋返魑魅不足驚
則同	西岑暮眼迷千樹
時經美躅今日起新懷	莫辨岐與路
分夏合中擎石臺	八宇同照徹
碧亭謹次退溪先生韻	莫辨岐與路
奉別宋元七	莫辨岐與路
拜審遺憊枉炳若見神容不啻如梓敬頤言囊重重	可見納盛德實難名
三槐堂先祖遺憊	此際吾與儔
棲碧亭	長途盤在前
下有清溪上有山雲光樹影繞簷間先生壹或思荷	日落西岑暮
歲暮端宜老此間	眼迷千樹中
清川分夏合中擎石臺佳松繞潭偃雲生細路埋	莫辨岐與路
時經美躅今日起新懷魚鳥來相近斜陽靜對崖	此際吾與儔
奉別宋元七	莫辨岐與路



하는 자는 도의(道義) 안으로 숨어들기 때문에 해독이 보이지 않지만 지극히 깊다”라는 구절이 있다. 스님은 명예도 허무한 것이라 했지만, 허균은 일시에 이득을 누리는 것보다는 만대에 이름을 전하는 것을 택하였다. 허균은 자리를 옮겨 지광국사의 탑비로 향했다. 문장이 심오하고 필치는 군세였다. 오래되고 기이한 비를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어루만졌다.

허균은 다녀간 이후 정병조(鄭炳朝, 1723~1801)는 ‘현산우거기(玄山幽居記)’에서 법천사의 옛터에 지금도 비석과 탑이 남아 있다고 알려 준다.

이때는 절터에 정시한(丁時翰, 1625~1707)의 사당이 세워졌을 때이다. 신좌모(申佐模, 1799~1877)의 ‘법천’이라는 시에는 옛날에 삼한 시대의 큰 사찰이 있었으며, 지광대사비(智光大師碑)와 부도가 있다고 주를 달았다. 지광국사(984~1070)는 문종이 왕사로 모셨다. 어가를 함께 태고 다니며 『법화경』과 유식학 강의를 하였다. 그가 법천사로 돌아온 것은 문종 21년인 1067년이었으며 1070년에 입적했다. 절터에는 11세기 부도탑비의 걸작이라 일컬어지는 지광국사 현묘탑비가 남아 있다. 화려한 조각으로 정교성이 있는 현묘탑은 법천사가 아닌 경복궁에 있다. 유방선의 무덤도 이제 여기에 없다. 그의 아들 유윤겸의 무덤도 찾을 수 없다. 당간지주에 마을 입구에 우뚝하며 탑재와 광배 그리고 배석 등이 남아 있을 뿐이다.